

민족단합의 길에서 빛나는 삶

장장 반세기가상이나 민족분열의 아픔을 안고 사는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자기의 혼신을 다 바친 애국자들이 많다.

그들 가운데는 백범 김구 선생도 있다.

1876년 7월 11일 황해도 해주 교의 운방리골에서 출생한 그는 일찌기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교리에 동조하여 천도교에 들어갔으며 18살때 갑오농민전쟁에 호응하여 동학(천도교)접주로 700여명의 봉기군을 거느리고 일본놈들이 틀고앉은 해주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3.1운동후 상해로 망명하여 상해임시정부의 정부위원장, 내무총장, 국무령을 역임하였으며 그후 상해임시정부주석으로 선임되었던 김구 선생은 한생을 방랑으로 살아온 완고한 민족주의자였다.

그러나 선생은 해방후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민족자주사상과 민족대단결사상에 공감하여 자기의 과거를 런공으로 전환하여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조국이 없고 민족이 망하면 사상이요, 주의주장이요 하는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김일성장군님을 만나 뵈고 민족통일을 이바지할수만 있다면 38° 선에서 쓰러져도 좋다.》

이것은 그가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는것을 막아나서는 한국독립당안의 국우익세력들에게 한 말이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리념은 민족을 위한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리념이나 민족이나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단언코 민족을 선택하였고 그 길에서 자신의 빛나는 생의 자리를 잡았던것이다.

당시 조선의 절반땅을 강점한 미국에 의한 조선문제의 유엔상정은 민족분열의 위기를 조국에도 몰아가며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앞길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국구대책으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때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유엔을 도용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책동에 대처할 방책을 모색하고있던 김구 선생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북련석회의의 소집방안은 그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였다.

하여 김구선생은 1948년 1월말부터 2월초에 걸쳐 경교장과 운현궁에서 한국독립당 중앙사무위원회를 열고 남조선의 민족자주련맹과 합작하여 북의 공산주의와 협력해나갈것을 다짐해나섰다.

1948년 1월 26일에는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유엔임시조선위원회단》의 의장 메노와 사무총장 호세택에게 유엔결의에는 조선민족의 자주적행사에 대하여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며 또 그것은 판계국과도 합의된것이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민족분열의 넘려를 자아내고있다. 《유엔임시조선위원회단》의 감시는 내정간섭으로 된다고 강하게 들이대며 조선문제의 해결책은 우선 쓰미랑군이 즉시 동시철폐하고 남북정치요인들이 협상을 통해 통일선거를 하는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던것이다. 이어 2월 10일에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눈물을 흘리며 말라다)함》이라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하여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리라 거 38° 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를 세우는데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완력하면서 남북을 통일한 완전자주독립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숙원이라고 호소하였다.

드디어 선생은 4월 1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띄우신 특별초청장을 가슴에 품고 당년 72살의 고령의 몸으

로 생명처럼 간수해온 상해임시정부의 인장을 품고 북행길에 올랐다. 4월 20일 아침 10시 38' 선을 건너 평양은 김구선생을 친히 만나 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선생이 어찌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를 하루 미루기로 하였다고 하시며 회의의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가 속소로 돌아갈 때는 현판에까지 나오시어 그를 따듯이 배웅해주시였다.

속소로 돌아온 선생은 갈라나온 막로들에게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자신의 첫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님은 참으로 젊으신분이시요. 항일유격전에서 수많은 왜놈들을 무찌르며 종횡무진하시던 그 기상이 어데 있는가싶었소. 참으로 겸손하신분이시요.》

남북련석회의는 다음날 21일에 다시 속회되었다. 김구 선생은 회의에서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할 명철한 지략을 활달하게 펴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열렬한 민족애와 세련된 정도수완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선생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도 자기는 장군님의 로선을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하면서 끝내 토론을 사양하였다.

회의가 끝난 어느날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속소로 가시어 물고기도 낚시고 어죽도 꾸시며 이채로운 야요음식상을 마련하시였다.

그날 김구선생은 수령님께 만경대에 있는 광부모님들의 묘비를 다시 세우면 좋겠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부모님들의 업적을 길이 전하려는 인민들의 소망이 담긴 비밀진대 갖도 없이 당진소 사복해서야 되겠는가고 말씀올랐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수많은 투사들의 묘도 아직 다 세우지 못하였고 우리에게는 나라의 통일독립과 부강번영의 아름다운 과제

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들의 묘비부터 크게 세우겠는가고 하시며 우리모두 하루빨리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독립을 이룩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로지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민족대단합을 위루 미루기로 하였다고 하시며 회의의안에 대해서도 구체애족의 정신앞에 김구선생은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김구선생은 수령님께 다음날 다시 만나주실것을 간청을 했다. 또다시 수령님을 모신 자리에서 김구선생은 목숨처럼 여겨오던 상해임시정부의 인장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의이 탁월한 정도를 받들어나갈 뜨거운 애국일념의 분출이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민족주의의 길에 한생을 바친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인장만은 김구선생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그저 인민의 지지와 믿음이면 된다고 겸허하게 사양하시였다.

이렇게 김구선생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정토록 소고한 도량과 포용력에 매혹되어 인생의 궤도를 새롭게 수정하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서울로 돌아간 다음날인 5월 6일 김구식 선생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금번 우리의 북행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의심하는 세계 인사들에게는 물론이요,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다수 동포들에게까지 금반 행동으로써 많은 오해를 이루어준것이다. 그리고 남북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도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 단결할수 있

다는것을 또 한번 행동으로써 증명한것이다. 이 회의는 자주적, 민족적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의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미소량군의 철수를 요구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후인 1949년 6월 26일 통일애국의 길에서 백발을 날리며 분투하던 백범 김구선생은 저택인 경교장에서 미국이 내세운 암살범인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렇게 백범 김구선생은 우리 결을 떠나갔다. 하지만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대단합을 위한 길에 자기의 한생을 다 바친 선생의 넋은 오늘날도 겨레의 거족적인 통일투쟁속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가 바라던 념원은 력사



남북련석회의참가를 위해 38° 선을 넘는 김구일행

적인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에서 값진 결실을 보게 될것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극적인 인생전환은 조선사람으로 태어나 민족의 거룩한 력사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길은 바로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노력에 있다는 진리를 온 겨레의 가슴속에 새겨주며 오늘날도 참된 삶의 교과서로 빛을 뿌리고있다.

2014년 6월 26일은 백범 김구선생이 피살된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심영철

백범 김구선생 피살 65돐에 즈음한 북남공동결의문, 공동발표문

백범 김구선생 피살 65돐에 즈음하여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남측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에서 26일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공동결의문은 해방후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을 반대하고 북남협상과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한 김구선생이 피살된지도 어언 6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선생이 생전에 그처럼 념원하던 조국통일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고 하면서 북남관계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 오늘날의 현실앞에서 단군민족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하였다.

첫째, 우리는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시대와 외세를 배격하는 반외세자주화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둘째, 우리는 민족의 안전과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겠다.

셋째,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결의문은 오늘날의 북남관계의 과격화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반목과 대결의 력사를 증시부를 찍고 북남관계개선의 확로를 하여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고 하면

서 우리는 조국통일의 목표와 대원칙, 그 실현방도를 우리 민족모두의 합의로 승화시킨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겠다고 하였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의 기개를 높이 떨치며 하나로 굳게 뭉쳐나가는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는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북과 남의 단군관련 민족운동단체들은 온 겨레의 지향과 애국지사의 념원을 따라 민족의 화해와 협력,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번영의 시대를 기어이 안아주기 위한 친민족적인 통일운동의 앞장에 서나가겠다는것을 온 겨레앞에 다시한번 엄숙히 결의한다고 하였다.

* * 백범 김구선생 피살 65돐에 즈음하여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남측의 《피스코리아》가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발표문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일찌기 반일독립운동에 나선 백범 김구선생은 8.15해방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견결히 반대하고 국토와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애국의 한길에 나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공동발표문은 자주통일과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가로막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완전적극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본사기자

단결하여 6.15통일시대를 되찾자

총련 조선대학교에서 6.15기념행사 진행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의하면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총련 조선대학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6일 조선대학교 조국통일문제연구소의 주최로 통일토론회가 있었다.

조선대학교 학생들, 교직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해설하고 북남공

통선언체택이 가지는 의의와 정당성, 생활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박근혜당의 반통일정책의 반동성과 악랄성을 폭로하였다.

이어 발언자들은 재일조선인학생들이 통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통일운동에서

자기 몫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한사람이 백결음을 가는것보다 백사람이 단결하여 큰 한결음을 내디디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모두다 단결하여 6.15통일시대를 되찾자고 호소하였다.

19일에는 《그러보자! 우리가 안아를 통일조국을!》이라는 주제의 6.15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지난 6월 24일 박근혜는 서울에서 열린 어느 한 모임에서 《남북을 가로막고있는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통일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가하면 얼마전에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 기념일을 맞으며 통일부장관 류길재와 《새누리당》대변인을 출중히 내세워 《6.15공동선언정신을 이어받아 대화, 협력의 남북관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느니, 6.15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느니 뉘니 하면서 그 무슨 《신뢰》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화》라는 북는 남조선당국에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의지가 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다른것은 제껴놓고 핵문제 하나만 놓고 보자.

박근혜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북남관계개선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든든한 안보를 기초로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나가려고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신뢰》앞에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전제조건이 뒤따랐다.

박근혜가 집권공약으로 들고나온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은 그 무슨 《인도주의적문제》 등을 통한 작은 《신뢰》로부터 큰 《신뢰》를 얻어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다는것인데 여기에도 《북핵은 결코 용인할수 없다.》라는 대전제가 달려있다.

그런가하면 올해에 들어와 련이어 들고나온 그 무슨 《통일대박론》이요, 《드레즈덴선언》이요 뉘오 하는것도 다 북의 《핵포기》에 기초하고있다.

최근 중앙아시아나라들에 대한 행각에 나선 박근혜는 외부에게까 핵문제를 들고다니면서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핵위협》을 떠들다못해 그 누구의 《핵포기》

핵과 북남관계

를 위한 《국제공조》 놀음에 매여달리였다.

박근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생색을 내면서 도 한사코 겉도없는 공화국의 핵은 그 누구를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위의 핵이며 민족의 생명과 자주권을호의 보검이다.

박근혜는 찍하면 북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고 기염을 토하지만 핵을 포기하면 핵을 가지게 한 원인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공화국을 핵보유어로 떠민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원자탄 공갈로 수많은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발생시킨 미국은 전후에도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나나면 핵무기사용을 주지하지 않는다.》라고 속언하였으며 남조선에 비밀리에 1 000여기의 핵탄두와 핵운반수단들을 전개하였다.

그런가하면 남조선호전광들과 야합하여 위협천만만한 합동핵전쟁연습을 체계적으로 벌려왔으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많은 첨단 핵라격수단들을 항시적으로 전개하여 의도적으로 정세를 악화시키고 그들의 《힘의 정책》의 《지레대》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짓부셔버리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공화국정부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의지에 대하여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는것은 잘 알려졌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위협은 제거된것이 아니라 더욱로 강화되었으며 조선반도에는 핵전제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게 되었다.

력사적으로 보나 현시점에서 보나 핵위협을 받은것은 남조선이나 미국이 아니라 바로 공화국이라는것은 반박할수 없는 사실인것이다.

하늘을 썰며 핵전략폭격기들이 날아다니고 코앞에 서 핵미사일들 탑재한 핵항공포함대 핵잠수함들이 떠다니는가 하면 항시적으로 공화국적영역을 겨냥한 대륙간핵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받고있는 현실앞에서 공화국이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강화하고있는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자위의 선택이다.

핵을 든 적대세력과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이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자명한 리치이며 그럴 때에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박근혜가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발생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에 대하여서만 악에 차서 시비하는것은 그가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가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하고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면 공화국의 핵을 문제시할것이 아니라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수십년간 공화국을 위협해온 미국의 행동부터 문제시해야 할것이다.

박근혜가 앞에서는 《신뢰》로 뉘오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것처럼 돌아다뒤에 돌아서서는 공화국의 핵에 대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늘어놓다 못해 해외에까지 나가다니며 《국제공조》를 애원하는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다.

그것은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핵위협》설을 여론화시켜 대북국제공조를 실현하고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미국과 야합하여 체제대결, 《흡수통일》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이다.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철두철미 그 누구를 위협하지는

않게 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보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핵이 북남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듯이 현실을 과평치하게 외곡하며 《핵포기》를 하면 무엇을 할수 있다고 집요하게 떠드는것은 결국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북남관계를 완전파국으로 몰아간 리명박의 《비핵, 개방, 3 000》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천부만 만부당한 《북핵포기》의 망상에 사로잡혀 반공화국핵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화해와 신뢰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은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

공화국의 핵과 북남관계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에 진정한 북남관계개선의지가 있다면 동에 달지 않는 《핵포기》설을 계속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에게 위협천만한 미국의 행태를 문제시하고 동족에 대한 대결과 압살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오늘 최악의 상태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있는 북남관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있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의 현 집권자지 지난 《대통령선거》에 나섰을 때만 해도 이전 《정권》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할것처럼 광고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전 리명박 《정권》의 《대북정책》보다 더한 대결정책이었다는것이 밝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알려진것처럼 박근혜는 앞에서는 북남사이의 《신뢰》를 떠들고 뒤에 돌아앉아서 는 동족과의 대결에만 피눈이 되어 날뛰어왔다. 《체제통일》야망이 그대로 담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따위를 《대북정책》

지난 3월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저 멀리 유럽에서 떠날 때까지 발표한 이른바 《드레즈덴선언》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반통일선언, 체제대결선언으로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보수패당은 아직까지도 후지장에 불과한 《드레즈덴선언》을 붙잡고 어떻게나 살려보겠다고 모지름을 쓰이고있다.

얼마전 중앙아시아나라들에 대한 행각에 나선 남 조선집권자는 그 나라 사람들은 물론 현지의 동포들을 만난 자리들에서 《드레즈덴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느니, 《북이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갈수 있도록 노력한다.》느니 뉘니 하면서 허실수설했다.

이에 뒤질세라 통일부장관 류길재는 《북이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떠들었다는가 하면

으로 내내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북침정비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런가하면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각종 도발과 모략사건조작에 광분하였다. 지어 그 무슨 《자유민주주

대결정책으로 얻을것은 없다

의제체하의 통일》과 《도이칠란트식통일》을 운운하면서 먹고 먹히는 체제대결의 흉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하기에 공화국은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이 가져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경고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

벌리고있다. 최근에는 말썽 많은 미국의 미차일방위체계의 핵심요소인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동족과 끝까지 해보겠다는 소리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신자들은 폐의적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지나온 력사가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외세와 손잡고 《북진》나팔을 불어대던 리승만씨가 4.19인민봉기에 의해 이역만리 태평양상의 섬에 쫓겨가 고독하게 살다가 죽었고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승평통일》을 부르짖던 《승평》독재자역시 력

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 광주를 피바다에 잠겼던 권력자의 자리에 기여을 앉힌 전두환, 로태우역도가 법정에 서고 《문민》독재자 김영삼역시 북화의 역적으로 카린되어 처과 제물로 된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혔다. 집권기간간 6.15통일시대에 역행하여 극도의 반북대결정책을 고취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파관으로 몰아간 리명박역도 는 내외의 저주와 규탄속에 산송장이 되고말았다.

과거는 현재를 위한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권》이 앞에서는 대결광신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온 겨레의 비난과 배격을 받는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을 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호